왁자지껄… 언니들 전성시대

6월 극장가에 '언니들'이 몰려온다. 떼인 곗돈을 찾기 위해 직접 범인을 쫓는 언니들이 있고, '꽃미남'에 빠진 모녀 3대의 사랑 싸움도 있다. 여기에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뉴욕 싱글녀들도 가세했다.

열혈 언니들-걸스카우트

목숨 보다 소중한 곗돈을 떼인 봉천 3동 여성들이 직접 노란색 봉고차를 몰고 범인 추적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항상 재테크를 도모하지만 손대는 족족 말아먹어 '생활계의 마이너스 손'으로 통하는 30대 미경, 백수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노장 샐러리우먼 60대 이만, 홀로 돼 아들 둘 키우느라 인형 눈 붙이기부터 돈 되는 일은 일단 하고 보는 억척 살림꾼 40대 봉순, 폼나는 인생을 꿈꾸며 로또 당첨에 열을 올리는 20대 은지가 주인공이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 3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선아가 주연을 맡았다. 여기에 연기의 달인 나문희가 든든하게 극을 받치며 드라마 '사랑과 야망' 등을 통해 만만찮은 연기를 보여준 개그우먼 이경실, 드라마 '여우야 뭐 하니'에서 고현정의 동생으로 출연했던 신인배우 고준희가 '걸스카우트' 대원으로 출연한다.

탄탄한 실력의 조연 배우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박원상이 그녀들의 '적'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다.

영화 '사생결단'의 음악감독으로, '공동경비구역 JSA'의 미술감독으로, '괴물'의 포스터 디자이너로 이름을 떨치며 팔방미인임을 과시해 온 김상만 감독의 데뷔작이다. 〈15세 이상 관람가·6월 5일 개봉〉

좌충우돌 언니들-흑심모녀

우연히 집에 찾아온 꽃미남을 사수하기 위해 모녀 3대가 벌이는 해프닝을 그린 코믹 판타지물이다.

남자 못지않게 터프한 남희는 로맨틱한 치매할머니인 엄마 간난과 아나운서를 꿈꾸는 스무살 철부지 딸 나래와 함께 억척스럽게 살고 있다. 어느날, 남희의 트럭에 사차원 정신세계를 가진 준이 뛰어든다. 트럭에 치일뻔한 준이 남희의 집에 찾아오면서 남희, 간난, 나래 세 모녀와 준은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한다.

극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배우는 역시 간난 역을 맡은 김수미다. '가문의 영광' 시리즈와 '못말리는 결혼' 등을 통해 코믹 연기의 달인임을 선보인 김수미가 표현하는 공주 캐릭터 치매할머니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여기에 오랜만에 영화로 돌아온 심혜진이 남희로 출연하며 이다희가 딸로 함께 호흡을 맞췄다.

그녀들의 사랑을 받는 남자 주인공 정현역으로는 최근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조강지처클럽'에서 구세주역을 맡고 있는 이상우가 출연한다. 〈12세 이상 관람가·6월 12일 개봉〉

멋쟁이 언니들-섹스 앤 더 시티

전 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시리즈 종영 후 시리즈 출연 배우들이 그대로 영화로 옮겨와 제작됐다.

유명 칼럼니스트인 캐리는 오랜 연인인 '미스터 빅'과의 완벽한 사랑을 꿈꾸고, 10살 연하의 배우와 불꽃 같은 사랑에 빠진 사만다는 그를 따라 할리우드로 떠나지만 자유로운 섹스와 뉴욕, 우정에 목말라한다.

쿨하고 이지적인 변호사 미란다는 평화롭기만 했던 결혼 생활에 뜻밖의 위기를 맞이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고민하던 샬롯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찾아온다.

많은 여성들의 선망하는 도시 뉴욕에서 펼쳐지는 싱글녀들의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지난해 개봉, 흥행에 성공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의상과 구두 등 패션 또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8세 이상 관람가·6월 5일 개봉〉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심혜진·김수미·이다희(사진 왼쪽부터) 주연의 '흑심모녀'는 꽃미남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녀 3대의 이야기다.

주목! 이 영화

'라스베가스에서만…'

갑자기 손에 넣게 된 300만 달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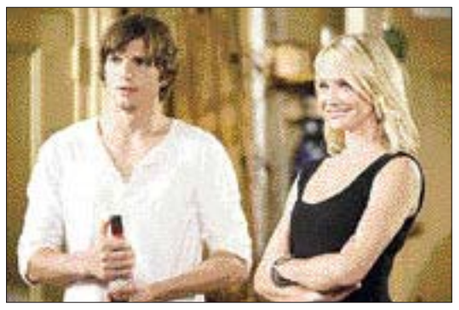
'내 남자 친구의 결혼식',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등을 통해 '로맨틱 코미디' 연기의 정수를 보여준 카메론 디아즈와 16살 연상의 데미 무어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애슈턴 커쳐가 주역을 맡았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조이는 친구들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보기 좋게 차이고, 잭은 졸지에 퇴직 명령을 받고 백수 신세가 된다. 실연과 실직을 잊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떠난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 밤새 술잔을 들이키고 결혼까지 하게 된다.

다음날 하룻밤 실수로 인한 결혼을 무효화하려던 두 사람은 카지노에서 300만달러 짜리 잭팟을 터트리고, 돈을 차지하기 위해 이혼을 전제로 한 부부생활을 하게 된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00만달러 잭팟이 터진다면?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라브베가스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	300만 달러를 차지하기 위해 조이(카메론 디아즈)와 잭(애쉬튼 커쳐)이 벌이는 기절초풍 동거 작전.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88분	범죄 심리학자 잭 그램(알 파치노)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전화를 받게 된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바디	의문의 지갑을 줍고 난 뒤부터 매일 밤 악몽과 환상에 시달린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 씨너스 전대	
위 오운 더 나잇	마피아로부터 생활의 터전인 나이트클럽을 지키기 위한 가족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방울 토마토	철거 직전의 판자촌에서 고단하지만 밝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 12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하미	
인디아나 존스 4-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인디아나 존스가 이번엔 전설의 크리스털 해골을 찾아 나선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겟썸	폭력에 살고, 폭력에 죽는 고등학생 이야기.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날라리 종부전	쥬얼리의 박정아가 '날라리' 생활을 청산하고 종갓집 종부로 살아간다. 12세 이상 관람가.
콜롬버스(하남)	
나니아 연대기-캐스피언 왕자	페벤시 남매들이 마법의 힘을 빌려 다시 나니아 세계로 들어간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페넬로피	'돼지코' 여인의 동화같은 사랑이야기.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CGV(첨단), 씨너스 전대	
스피드 레이서	비의 할리우드 데뷔작. 일본 애니메이션 '마하 고고고'를 원작으로 한 오락물. 12세 이상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하남), 하미, 엔터	
아이언 맨	마블코믹스의 원작 만화 아이언맨을 SF 액션 장르로 영화화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가루지기	봉태규 주연의 부실한 청년 新변강쇠 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엔터	